빛가람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 첫 설 어떻게

3000여명 전세버스 타고 역귀성…“가족들과 장기 휴가 설레요”

서울·부산 등 차량 투입…KTX 표 구입엔 ‘여유’
농어촌공사, 직거래 장터 열고 지역 농산물 판매
“지역 돕고 설 선물 1석 2조”…교류행사 없어 아쉬움

“조금 긴 주말을 보낸다는 느낌입니다. 재충전하고 일터로 돌아와야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 도시)에 둥지를 튼 이전기관 직원 3000여명이 나주로 근무처를 옮긴 후 첫 설을 앞두고, 장기 휴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해 말 16개 이전 기관 가운데 대부분이 안착한 뒤 처음으로 맞는 연휴이기 때문이다.

아직은 나주에 정착한 이주 직원이 많지 않아 서울 등 수도권으로 역귀성하는 직원이 대부분인 만큼, 이전 기관들은 전세버스 등을 동원해 ‘귀성길’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설에 700명 가량이 역귀성하는 한국전력의 경우, 서울과 부산 등지로 떠나는 직원들을 위해 전세버스 33대를 이용해 귀향을 돕는다.

한 이전 기관 직원은 “이전한 뒤 2개월여 밖에 되지 않아 적응에 힘이 부쳤는데, 닷새 연휴를 이용해 가족과 오랜 기간 만날 수 있게 됐다”며 “이전 기관 직원 대부분이 비슷한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들이 버스를 지원하는 데다, 역귀성인 만큼 직원들의 항공권과 KTX 표 구하기는 큰 차질이 없어 보인다. 17일 광주 송정에서 출발하는 용산행 KTX는 아직 예매가 가능하다.

역귀성하는 직원들의 명절선물 마련을 위해 농어촌공사 등은 혁신도시에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를 열고, 지역 농산물 판매에 나섰다. 가장 인기 좋은 선물은 ‘나주배’로 농어촌공사가 마련한 상생장터에서 나주배는 다른 품목보다 압도적인 판매량을 보였다. 나주시도 16일부터 이틀간 로컬푸드 장터를 개장한다.

한전의 한 직원은 “나주배를 선물로 사오라는 친지들의 요구가 많아 장터에 들를 계획”이라며 “지역경제도 돕고, 좋은 품질의 선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1석2조”라고 설명했다.

이전 기관 직원들의 첫 명절인 만큼, 이전 기관 직원과 지역민이 교감할 수 있는 지자체의 교류행사가 드문 것은 아쉬움으로 꼽힌다.

나주시는 농산물 판매행사 외에 특별한 귀성 지원이나 환송 행사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 최근 한전이 나주시와 상생을 위해 1처1촌 자매결연을 맺고, 주민 3000여명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한 것처럼 나주시가 역귀성하는 직원들에게 출발 전 ‘떡국’을 돌리는 등 이벤트성 행사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이전 기관 직원은 “가족과 떨어져 사는 대다수의 직원들이 명절을 맞아 서울로 올라가지만 다시 내려올 땐 나주에서 고향의 정을 느꼈으면 한다”며 “이전 직원들을 더욱 따뜻하게 환대해 주는 정감 어린 손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동률 기자·나주=손영철기자 ycson@

어르신들 앞 천사들의 재롱잔치

11일 오전 광주시 북구 중흥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설맞이 어르신 초청 사랑나눔 잔치’에서 중흥어린이집 원생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어르신들 앞에서 애교 섞인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호남권, 흡연·음주율 전국 최저

2008~2013 지역건강 조사…제주 흡연·강원 음주 ‘고위험’

‘호남지역민들은 건강 모범생들?’

전국 시·도 가운데 강원, 제주, 인천 지역에서 흡연율과 고위험음주율이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건양대 홍지영 교수팀이 질병관리본부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제출한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행태 지표 관련 영양요인 분석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지난 2008~2013년 평균 현재흡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였다.

제주 지역의 흡연율은 2008년 26.5%에서 2013년 25.0%로 낮아지긴 했으나 평균 26.2%로 16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이 26.1%, 강원이 26.0%로 뒤를 이었다. 흡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과 전북으로 각각 21.9%였다.

같은 기간 평균 고위험음주율을 살펴보면 강원이 21.2%로 가장 높았다. 음주경험이 있는 5명 중 1명 이상이 주 2회 이상,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는 7잔, 여자는 5잔 이상 마셨다는 것이다.

강원에 이어 제주가 20.8%, 인천이 19%였다.

강원, 제주, 인천 세 지역이 흡연율과 고위험음주율에서 모두 자리를 바꿔가며 나란히 1~3위를 차지한 것이다. 반면 고위험음주율이 낮은 지역은 전북(15%), 광주(15.1%), 전남(15.2%) 순으로 호남지역이 흡연율뿐만 아니라 고위험음주율도 낮았다.

/윤현석기자 chadol·연합뉴스

영유아 A형 간염 백신 무료

5월부터 영유아는 A형 간염 예방 백신을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약 90만명을 대상으로 보건소를 포함한 전국 7000여곳의 의료기관에서 A형 간염 예방 접종을 5월 1일부터 무료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A형 간염 예방 백신은 생후 12~36개월 사이에 두 차례 맞아야 하며 그동안 약 10만원 정도를 내야 했다.

예방접종도우미(http : //nip.cdc.go.kr) 사이트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화순 봇도랑’ 농업유산 추진

화순군이 이서면 영평리 일원에 조성된 봇도랑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013년부터 제주도 밭 돌담, 청산도 구들장논, 구례 산수유농업, 담양 대나무밭 등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무등산 중턱에 조성된 봇도랑은 계곡의 물줄기에 보를 막고 돌과 흙으로 도랑을 만들어 다랑이논에 물을 대는 시설이다. 보는 1t 이상의 바위로 만들어 튼튼하고, 경사를 5~6도로 일정하게 유지해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등 수자원 관리 기술의 집합체로 평가된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경영부실 ‘회원제 골프장’ 대중제 전환 검토

캐디·카트 선택제 도입 등…정부, 대중화 유도책 마련

정부가 법정관리 상태에 있거나 도산된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퍼블릭)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카트와 캐디 선택제를 도입해 골프장 이용 가격을 내려 부담없이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골프의 대중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 앞서 각 부처 장관들과 티타임을 하던 중 세간에 알려진 골프금지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골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골프장 업계에 따르면 전국 500여개 골프장 가운데 80여곳은 빚이 자산보다 큰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20여곳은 법정관리 상태이며 경기 침체로 도산하는 곳이 늘어나는 등 전반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다.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제에 비해 세금 부담이 크지 않고 이용 가격도 1인당 평균 4만~5만원 정도 싸며 영업 이익률도 높은 편이다. 정부는 또 골프장에서 필수 비용으로 관행화된 캐디와 카트 이용을 고객이 결정할 수 있는 캐디·카트 선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카트 이용료는 대당 6만~8만원, 캐디피는 팀당(4명 기준) 10만~12만원 정도여서 골프 고객은 골프를 칠 때 그린피 외에 1인당 5만원 정도를 더 낸다. 캐디·카트 선택제가 도입되면 골프 비용이 5만원 정도 더 줄어든다는 의미다. 정부는 캐디·카트 선택제를 공공부문 골프장에는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민간 골프장에는 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